

▣ 르노삼성자동차, 체계적인 준법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

전사차원의 다양한 액티비티 전개 예정...투명경영의 모범회사로 거듭날 것

르노삼성자동차(대표 장 마리 위르피제)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의식 제고를 위해 10월 29일,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 내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투명하게 준수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공정거래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르노삼성자동차는 이에 상응하는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사내 자율준수관리임원(상무급)을 임명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및 판매 관련 공정분야와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자율준수활동을 개시한다. 아울러 공정 거래법에 대한 준수의를 천명한 장 마리 위르피제 대표이사의 메시지 및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공정거래 매뉴얼'을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칼럼을 게시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번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도 소비자를 위한 정도영업 실현 및 '원 프라이스'(One-price) 정책 전개, 임직원의 윤리 강령 제정,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펀드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상생의 자동차 문화를 구축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아 왔다.

자율준수관리임원으로 임명된 진영균 상무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에게 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전개함으로써 임직원의 기업윤리의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진 상무는 또한 "향후 자유주의 경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갈으로써, 투명경영의 모범적인 회사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카르텔 규제의 쟁점' 법률포럼 개최

법무법인 총정·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 개최

법무법인 총정과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공동으로 10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제4회 총정법률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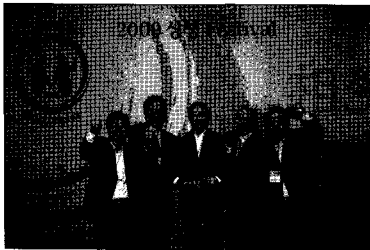
이번 포럼은 최근 기업활동의 주요 쟁점인 국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미국 독점금지법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실무'라는 주제로 다양한 동향과 쟁점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에는 서강대 로스쿨 홍대식 교수가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의 쟁점'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배 변호사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집행'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쟁법 집행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양종윤 변호사, 윤대식 LG전자 공정문화그룹장,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 한양대 로스쿨 이호영 교수, 부산대 로스쿨 주진열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경쟁정책국장 등 카르텔 관련전문가들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을 기획한 법무법인 총정의 서석희 변호사는 "최근 국내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은 국내 공정거래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카르텔에 관한 경쟁법을 심도 깊게 다루어 한국기업들의 미국에서의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LG디스플레이, '상생협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상생협력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2011년 No.1 협력회사 육성' 비전 선포



지난 3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달성한 LG 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가 협력회사와의 '상생'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10월 23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곤지암 리조트에서 권영수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국내외 50여개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페스티벌' 행사를 갖고, '2011년 No.1 협력회사 육성'의 상생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11년 No.1 협력회사 육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LG디스플레이의 3대 추진전략은 첫째 '근본적 경쟁력 공유', 둘째 '사내 상생 전문가 육성', 셋째 '3-Way 협력 관계 구축'으로 구성된다.

LG디스플레이의 이러한 3대 추진전략 중 '근본적 경쟁력 공유'는 첫째, 협력회사가 LG디스플레이와 '하나의 팀(One Team)'이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LG디스플레이가 가진 모든 물적·인적·정보 자원을 공유하며 셋째, LG디스플레이의 장점인 '경청'과 '배려'의 조직문화가 협력회사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내 상생 전문가 육성'의 경우, 현재 상생협력 전담부서(상생지원담당)에 소속된 약 70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실시, 업무 및 지식 역량을 현행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상생협력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준을 넘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3-Way 협력 관계 구축'의 경우, 국내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협력 방식을 탈피해, LG디스플레이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협력회사가 그 노하우를 실제 생산현장에 접목하면서 얻은 지식을 다른 협력회사와도 공유하는 'Win-Win'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또한 협력회사의 협력회사에 까지도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Win-Win-Win'의 시너지가 발휘되도록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날 LG디스플레이는 이러한 '2011년 No.1 협력회사 육성'을 함께 실천해 나갈 전략적 협력회사의 숫자를 현재 40여개사에서 2010년 이후에는 60개사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대상이 되는 품목도 현재 20여개의 주요 품목에서 2010년 이후에는 3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상생협력의 확대 전개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 권영수 사장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며, 협력회사는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고 설명하고, "2011년 No.1 협력회사 육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2007년 국내 LCD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생산기술과 기술개발 노하우를 협력회사에 전수해 협력회사가 업계 최고의 기술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해 왔다.



☐ 웅진코웨이,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전 사업부문 탄소 배출량 20% 절감해 통합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는 9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09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본 시상은 환경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공동 주최한 '2009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의 개막일에 진행된 특별순서로, 정부가 신(新)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개발·보급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웅진코웨이는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선언, 온실가스 배출 통계 시스템(인벤토리) 구축, 업계 최초 정수기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여 등 유해물질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인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웅진코웨이는 'Low Carbon Society, Woongjin 20%'라는 웅진그룹 전체 슬로건 하에 친환경 신기술 개발, 유해물질 규제 대응, 그린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줄인다는 전략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냉온수기제품으로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통계 시스템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도입, 협력사 선정시 기업의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그린파트너 인증제도' 실시 등 여러 사업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산업 종합전시회인 본 박람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것은 국가의 녹색정책에 적극 동참해온 웅진코웨이의 환경경영이 정부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8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59곳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마치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통해 포상 적격심사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환경부 공적심의회 개최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7곳을 정부포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웅진코웨이 홍준기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웅진코웨이의 친환경 혁신이 각 사업부문에서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사업부문에서 환경유해물질을 줄이는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해 정부의 환경변화 대응과 탄소저감운동에 든든한 협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웅진코웨이 외에 코오롱건설, 소비자시민모임, LG하우시스, 육군본부, 뉴그린, 노리단 등 7곳의 기업 및 단체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 LG텔레콤, 합병 이사회 결의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LG 통신3사, 10월 15일 이사회서 합병 결의



LG 통신3사인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본격화되고 있는 유·무선통신과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LG텔레콤(대표 정일재)과 LG데이콤(대표 박종웅), 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각각 10월 1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3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3사 통합은 이동통신사인 LG텔레콤이 인터넷전화와 IPTV 등의 사업을 하는 LG데이콤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LG파워콤 등 2개의 유선통신사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LG텔레콤이 합병 후 존속법인인 된다.

LG 통신3사는 향후 합병추진 일정에 대해 10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고, 11월 27일 3사별 합병승인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병기일인 내년 1월 1일, 통합법인 “LG텔레콤”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추진 배경은 국내외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유무선 컨버전스 추세와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 등의 측면에서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뿐 아니라 무선통신사인 LG텔레콤까지의 3사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LG 통신3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LG텔레콤의 강한 소매역량과 LG데이콤과 LG파워콤의 축적된 기업 및 가정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합해 유·무선 서비스 각각의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결합상품 및 다양한 신규사업에서의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케팅 효율화 등 3사 중복비용의 감소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10월 15일 열린 3사 이사회에서는 이상철 전 광운대 총장을 합병법인의 CEO로 내정하고, 내년 1월 합병법인의 출범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3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통합법인 LG텔레콤은 자산 7조 8,818억 원, 매출액 7조 7,190억 원, 영업이익 6,850억 원, 가입자 1,360만 명(이상 3사 단순 합계), 종업원 4,000여 명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유·무선통신사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한편, 이번 LG 통신3사의 합병 추진은 유·무선 통신 및 통신·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려는 노력이 더욱 본격화되고, 통신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SK C&C, 국내 대형 IT서비스 '빅 3' 중 최초 상장

SK그룹, 순환출자구조 해소 통한 SK지주회사 체제 전환 가속화



SK C&C(대표 김신배 부회장)가 국내 대형 IT 서비스 '빅 3' 가운데 최초로 IPO(기업공개)를 통해 오는 11월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SK C&C 김신배 부회장은 10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 C&C의 상장은 경영 투명성과

대외 신인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상장의 의미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이번 상장은 IT서비스 업계 '빅 3' 중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IT서비스 산업의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뜬 시장의 인식과 평가를 통해 IT서비스 산업이 도약,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SK 그룹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해 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 7월 기업공개를 연기하고 적절한 상장시점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해소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는 2011년 6월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등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IPO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IPO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의 잔여 물량 15%(750만 주)는 2011년 6월말까지 해소하면 된다.

SK C&C는 이번 IPO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보호예수기간 후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시장 상황에 맞는 범위에서 자사주 취득 등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K C&C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수요예측 참여가격, 수량, 배정 고려 사항 등을 감안해 IPO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10월 30일 공모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1월3일부터 4일까지 청약, 6일 납입 등 공모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매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SK C&C 기업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짐으로써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 사업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뒤 "산업 각분야에서 쌓아온 IT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IT서비스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LS, 상생펀드 및 네트워크론 통해 404억원 중소기업 지원

1,500여개 협력회사와 'LS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LS그룹(회장 구자홍)이 중소 협력회사들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상생펀드 조성과 네트워크론을 통한 금융 지원 등 총 40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LS는 10월 15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LS타워 대강당에서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등 7개 주력 계열사가 참석한 가운데 1500여 개 중소 협력회사

와 'LS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서 LS는 우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① 바람직한 계약 체결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실천키로 했다.

LS는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금융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론을 통해 310억 원의 협력회사 대출지원 및 설비·운영자금 34억 원 등 총 404억원의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LS는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등 5개사는 현금성 결제비율을 50~100%로 높이기로 했으며, E1과 예스코는 기존 100%를 유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신제품 공동개발 지원, 공동 특허출원 등 기술지원과 협력회사 임직원 경영관리교육, 해외연수 등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구자열 LS전선 회장은 "LS 상생협력 선포식은 협력회사와 함께 역량을 개발하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동반 성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LS는 간담회와 정보교류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회사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구자열 LS전선 회장 및 7개 계열사 대표와 협력회사 대표를 비롯해, 정호열 공정거래 위원장, 이석현 국회의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명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법무법인 화우, 국내 로펌으로는 첫 전문연수원 설립

로펌 자체연수원 통해 인재양성 나서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로펌 최초로 로스쿨 학생과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내 전문교육기관인 '화우연수원'을 설립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2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 410㎡ 규모의 화우연수원 개소식을 가졌다. 화우연수원은 법무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 등 80여 명이 교수로 참여하며 이주홍 화우 대표 변호사가 초대 원장직을 맡았다.

교육 대상은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학생, 로펌 내 신입·경력변호사 등으로, 사법연수원생에게는 6개월, 로스쿨 학생에게는 동·하절기 중 1~2개월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과목은 일반강좌와 전문강좌로 구분해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 등 일반강좌와 변호사 소양 교육에 걸쳐 31개 과목을 배정하고 소속 변호사 80여 명을 교수진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은 외부강사로 초빙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화우연수원장인 이주홍 대표변호사는 "로스쿨은 이론중심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로펌의 변호사들이 직접 실무중심 교육을 수행한다면 예비법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연수원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경쟁법학회, 2009년 정기학술대회 개최

'경쟁법 집행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공동 개최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신현운)는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10월 16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경쟁법 집행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9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업, 정부부처, 대학, 로펌 등 여러 기관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2부에 걸쳐 진행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채이식 원장이 축사를 한 가운데, 제1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오성환 고문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독점규제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발표하고, 이어 공정위 기업결합과 김동명 사무관과 중앙대 경제학과 이상규 교수가 열띤 토론을 하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고문이 사회를 담당한 제2부 제1주제에서는 고려대 이황 교수가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의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와 성균관대 이선희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주제에서는 한동대 김성훈 교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검토'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서 부경대 김두진 교수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정희은 서기관이 발표문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토론에 참여하면서 한층 폭넓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경쟁법학회 신현운 신임회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학술대회의 마무리를 짓고, 만찬을 겸한 또 다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 한화그룹, 중소기업협력사와 상생협약 체결

김승연 회장,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 약속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9월 24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58층 주피터홀에서 1,000여개 중소 협력사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 및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단, 그룹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 및 협력회사 국영지앤엠 최재원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인사말에서 “다음 달 그룹 창립 57주년을 앞두고 기업의 성장사를 돌아보건데, 중소기업 여러분이야말로 한화 발전에 묵묵히 조력해오신 숨은 공로자” 라면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하나하나가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強小企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앞서 지난 해 8월에 김승연 회장 주재 하에 그룹내 화학사업 부문 협력업체들과 ‘한화가족 상생협력회의’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한화그룹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은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들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를 위해 세부 방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중요 현안인 결제대금지급의 현금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결제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과 운용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성과 적정성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인력과 교육지원 외에도 원부자재 구매대행 서비스, 경영 타격제 운영 및 법무상담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활동도 적극 수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그룹은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한 소통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